전북특구 '찾아가는 투자IR 행사' 진행

이노폴리스 공공기술기반펀드, 넥서스비 · 디앤티 · 지에이티 대상 투자검토 · 멘토링 진행

전북특구본부는 18일~19일 양일에 거쳐 전북특구를 이노폴리스 공공기술기반펀드 투자운용사가 직접 방문해 투자검토와 투자전략 및 시장진출 멘토링을 실시했다.

이번 '찾아가는 투자IR 행사'는 지난 12일 이노폴리스 공공기술기반펀드 결성 이후, 첫 번째 투자유치 행사로 최근 급속히 확대되는 연구소기업 등 전북특구내 초기기업에 보다 안정적인 성장을 밀착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북특구 찾아가는 투자IR 행사'는 (주)넥서스비(연구소기업257호), (주)디앤티, (주)지에이티 총 3개 기업을 대상으로 1:1 심층 인터뷰를 통해 투자검토와 멘토링을 함께 진행했다.

투자IR 참여기업은 자사의 주요 사업아이템과 비전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후 기업 성공전략에 대한 활발한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주)넥서스비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진공증착장비 생산 전문기업이고, (주)디앤티는 전해수 생성장치가 구비된 전자동 물걸레 청소기 제조 벤처기업이다.

또한, (주)지에이티는 차량용 공조시스템의 압축기 체크밸브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국산화를 통해 수입대체를 꾀하고 있다.

이번 투자IR에 참여하는 3개 기업은 이노폴리스 공공기술기반펀드에서 투자검토는 물론 기술기업의 전략적인 투자관리 전략, 시장 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까지 지원받았다.

방문기업이었던 (주)디앤티 정우중 대표는 "창업 초기기업으로서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찾아가는 투자IR 행사와 같은 투자연계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4월에 총 501억원 규모로 결성된 이노폴리스 공공기술기반펀드는 연구소기업과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주로 공공연구성과를 사업화한 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게 된다.

또한 약정총액의 50%이상을 전북특구를 비롯한 전국 5개 연구개발특구내 기업에 투자한다.

박은일 본부장은 "이번 찾아가는 투자IR행사를 시작으로 전북특구의 창업 초기기업 또는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기업이 적기에 자금조달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크라우드펀딩 및 투자IR 개최, 특구펀드 등 투자연계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마을상품판매장, 매출 10억

올해 1분기 동안… 도, 다양한 이벤트 개최 판매 앞장

6차산업 인증사업자, 향토제품 등을 홍보·판매하는 마을상품판매장(안테나숍)의 올해 1분기 매출이 10억 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매출액은 지난해 4분기 대비 6억 원에서 4억 원이 늘어나 약 66%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연말까지 40억 원의 판매고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을상품판매장은 6차 산업 마을상품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반응을 테스트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자가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 2015년 5월부터 익산 매장을 시작으로 현재 도내에 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판매장에는 도내에서 생산하는 170개의 6차산업 인증업체가 생산한 제품 중 유통품평회에서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제품을 전시, 판매 중이다.

또한 소비자의 구매의욕 고취를 위해 지역농산물로 생산된 제품을 생산업체가 직접 참여하는 판촉행사도 개최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도 6차산업지원센터는 우수제품 품평회, 입점 현장코칭 등 품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으며 그 결과, 제품 및 포장디자인 면에서 큰 변화를 이끌어 내며 소비자 공략에 힘을 보탰다.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마을상품 판매장이 도농·교류의 장이 되도록 다양한 고객 사은행사 등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판매촉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도, 4개 국어 지방세 안내문 제작

전북도는 증가하는 도내 외국인 주민의 납부편의제공을 위해 지방세 외국어 안내문을 4개 국어로 제작.배포한다.

안내문은 도내 외국인의 출신국별 인구수를 고려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로 돼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납부방법 및 자동차세.주민세.취득세 안내 등이다.

안내문은 도청 및 각 시.군 민원실에 비치돼 있으며, 전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 세정과 부서소식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안재용 기자

전북도, '점자여권' 발급 개시

전북도가 시각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20일부터 '점자여권' 발급을 개시한다.

'점자여권'은 1~3급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여권정보를 수록한 투명 점자스티커를 여권 앞표지의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는 여권 개인정보가 수록된 점자여권 발급이다.

점자여권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는 여권신청서, 여권용 사진, 기존여권유효기간 남아 있는 여권은 반납,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증을 제출하면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점자여권의 도입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해외여행에 따른 항공, 숙소 등 예약시 본인의 여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19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유공자 시상을 하고 있다.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열려

장애인 인권선언 낭독 · 다채로운 행사 진행

제37회 전북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사)전라북도여성장애인연대 주관으로 전주화산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라는 불편 때문에 평소 바깥나들이를 자주 하지 못했던 도내 장애인 1,500여명이 모여 재활의지를 북돋우고 비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사는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한데 모아 '장애인 인권선언' 낭독과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전북도는 올해로 37회째를 맞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들이 바깥나들이를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적극 정비해 나가는 한편, 몸이 불편해 평소 운동부족으로 인한 비만 등의 성인병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창출은 장애를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구현의 지름길로 여기고 공공일자리인 장애인 복지일자리와 행정도우미, 취업뱅크를 활용한 민간일자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전주지역에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문을 열어 장애인 교육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 군산과 익산에 2개소를 추가로 설립, 운영중이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북보조기기센터에 이어 지난해 7월부터는 발달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돕는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우리지역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전북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인권팀을 운영하는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등도 함께 확대해 더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과 동시에 장애인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기자

도선관위, 장애 선거인 '모의 투표 체험장' 운영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19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장애 선거인의 '모의 투표 체험장'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투표참여 불편 선거인에게 모의 투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투표과정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의 투표 체험장'은 실제와 동일한 모의 사전투표소를 설비하고 본인여부 확인, 투표용지 교부, 기표, 투표함 투입 등 투표 절차별로 체험했으며 청각장애 선거인에게는 전북농아인협회 소속 수화통역사를 통해 모의 투표 체험시 편의를 제공했다.

아울러, 다양한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모의 투표 체험을 하고, 투표 절차.방법 안내, 특수형 기표용구 세트 등 장애 선거인 투표편의를 지원했으며 선거물품 전시 및 활용방법도 시연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장애 선거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투표편의 제공방안을 마련.시행할 것"이라면서 "장애 선거인도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도, 천일염 명품화 육성 박차

올해 17억6200만원 투자

전북도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해양수산업 재도약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올해 17억6200만원을 들여 천일염 명품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몸에 좋은 미네랄과 쓴맛을 내는 간수 성분인 염화마그네슘 함량이 적고, 간수를 재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단맛이 나는 등 품질이 우수하지만, 전남 신안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도는 천일염 6차산업화 사업을 '1부서 1정책 아이디어'로 발굴해 2018년도 국가예산을 확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곰소염전을 활용한 소금생산체험장, 전시.홍보관, 해수풀장, 소금힐링스파, 찜질방 소금레스토랑 등 천일염의 생산.가공.관광을 연계한 6차산업화를 통해 도내 천일염 명품화 및 대외 인지도 상승뿐만 아니라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근 해양수산과장은 "천일염 생산업이 기피업종으로 인식돼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어업인에 비해 소득이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천일염 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